

표현의 자유 논란



윤 휘 중 의

잠시 쉼표

지난 9일 국회에서는 의원회관에 전시 될 예정이었던 윤석열 대통령 풍자 그림 80여점을 국회사무처가 전격 철거한 일이 발생했다. 이번 전시는 서울민족예술단체 총연합과 굿바이전시조직위원회가 주최 하고,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의원 12명 이 주관했다고 한다.

이를 놓고 전시를 주관한 의원 측은 “국 회가 표현의 자유를 짓밟았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측에선 “표현의 자유 뒤에 숨어 대 선 불복의 헌법정신 파괴를 자행하려는 민 주당 세력을 강력 규탄한다”며 맞반었다.

지난해 10월경, ‘윤석열차’를 놓고 한바 탕 논란이 됐던 표현의 자유가 다시 관심 을 끌고 있다. 표현의 자유란 헌법에 정해 진 기본권의 하나로, 자신의 생각이나 의 견을 억압이나 검열 없이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

헌법 21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 다’고 명시돼 있다. UN도 ‘모든 사람은 의 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간섭없이 의견을 가질 자유와 국경에 관계없이 어떠한 매체 를 통해서도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얻 으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며 표현 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표현에 대해 자유를 보장하 는 건 아니다. 헌법 21조 4항에는 표현의자 유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명예나 권 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면 안 된다고 돼 있고, 헌법 제37조에는 국가안 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다만, 이를 제한하는 경우 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 할 수 없다는 조건을 달아, 표현의 자유에 대해 조심스러운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의 모든 표현에 자유가 보장돼야한 다는 의미는 아니다. 파시즘이나 독재, 각 종 차별, 인신매매, 국가전복 등을 주장하 는 표현에도 자유를 보장해주는 게 과연 옳은 일인가.

물론, 그 표현의 자유를 누가 판단할 것 이냐에 대한 문제는 있다. 표현의 자유를 판단하는 주체는 당연히 민주주의의 주권 을 갖고 있는 주체, 즉 국민이 해야 한다. 그 국민이 누구냐는 게 논란거리다.

또한, 표현의 자유를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이번 전시 가 논란이 되는 것은 그림 자체가 아니라 누가 어디에서 했느냐를 봐야 한다. 국민 의힘 주장처럼 ‘민주당이 대선에 불복해서 대통령을 비방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로 보 장할 수 없다’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 다. 오히려 ‘거대 야당이 재야단체 뒤에 숨 어서 전시 장소를 국회로 택한 것이 문제’ 라고 본다.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 는 곳에서 전시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 우 리 정치의 심장부인 국회에서, 정치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야당 진영이 대통령을 풍자 하는 그림을 전시했기 때문에 반대 진영에 서 ‘정치적 의도가 있을 것’이란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표현의 자유를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으 로 행사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한다면 또 다른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다. 에블린 비트리스 홀이 18세기 계몽 주의 철학자 볼테르의 사상을 요약하며 ‘볼테르의 친구들’에서 쓴 것처럼 “나는 당 신의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당신 의 말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면 죽을 힘을 다해 싸우겠다”고 한 게 어떤 의미인 지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정치경제부장 yhj@metroseoul.co.kr

선물이란, 포장이란



김지수첩

김 서 현
(유통&라이프부)

선물이란, 받는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물건이다. 받으면 기쁜 게 선물이지만 검은 비닐 봉지에 담아 주면 주는 이의 성 의와 의도가 의심받는다. 허접한 포장에 선물이 되려 망가지기도 한다. 사람들은 선물을 보호하고 받는 이에게 어떤 긍정적 인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 포장에도 정성을 기울인다.

문제는 포장에 너무 큰 정성을 쏟으면 받는 사람이야 빨리 몰라도 환경에는 아 니라는 것이다. 모든 종류의 맨들거리는 코팅지는 재활용이 불가능해 일만쓰레기 로 버려야 한다. 롯데마트가 과감히 매주

발행하던 종이전단 운영을 중지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난해 9월 추석 명절, 백화점 선물세트 매대는 친환경을 홍보한 것이 무색했다. 각고의 노력으로 도입한 다회용 보냉백 등 이 무색하게 친환경적인 종이 완충재와 상 자를 이용해도 과일과 고기는 하나하나 비 닐 포장과 필름지에 싸여있었다.

그 결과 한동안 백화점업계에는 ‘그린 위상’ 논란이 일어났다. 백화점 업체들은 제각각 여러 전문가 그룹과 연구를 이어가 고 있다며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한다. 상 품을 보호하는 것 또한 선물 포장의 해내 야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당장 모두 바꾸 기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남을 기쁘게 하려고, 리본을 풀며 기대 하는 얼굴을 보려고 생각없이 썼던 포장지 와 리본끈이 기후 위기를 앞당기고 있었다

니! 알고보니 화가 나서 공격하는 글을 잔 폭 쓰려 했다.

그런데, 문득 최고급 꽃갑 30개를 포장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홀로 생각하 는 데, 플라스틱 상자에 알알이 담은 것 외엔 도통 떠오르지 않는다. 도리어 문득 이렇 게나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는 환경을 망가 뜨리는 일에 익숙했고, 다른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없구나 싶어 반성하게 된다.

다양한 기사와 전문가들은 유통업계의 변화를 촉구하면서도 동시에 선물 문화를 바꿔야 한다고 말한다. 특정한 물건을 주 기 보다는 전자 상품권을 주는 식으로 구 태여 선물 포장의 필요없도록 바뀌어나가야 한다 말한다. 기업에서 새로운 대안을 연 구해 내놓기까지는 시간이 걸릴테니 그레 야 한다고 말한다. 그런데 얼마나 기다리 면 될까?

/seoh@

김상회의四季

재복의 크기



필자의 지인인 P씨는 근 이십년 전 상담을 온 후 계속 인연을 맺어왔 다. 그는 금융계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자신의 재운에는 증권투자가 맞 지 않음을 처음 상담 시부터 주의를 주었었다. 그의 재물 방향은 토 (土)로써 주택이나 아파트와 같은 주거부동산에 재물을 묻어두면 분명 효자노릇을 할 것이라고. 60년 음력5월생 경자년 신사월 기미일(庚子 辛巳 己未)사주로 전형적 습니오옥(濕泥汚玉;참견이 심하여 손해발 생)이다. 月の사중 경금(己中庚金)이 투간되어 식상이 왕하니 뜯구름 쫓을 수가 있어서 재물이 흩어진다.

주식은 편재성으로 과하면 불급이라 P씨의 사주로 보아서는 득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몇년전 필자를 찾아와서는 아파트를 중부세 폭탄 으로 인해 도저히 부담이 돼서 처분을 하겠다는 것이다. 필자는 참은 김에 조금만 견뎌보라고 말렸었다. 무엇보다 P씨에게는 주식투자가 맞지 않고 그래도 부동산 유지는 최소한 유지한 보람을 있게 할 것이라 고 말이다. 그러나 P씨는 급기야 처분을 하고 말았다. 그렇게 팔고 나 자마자 전국의 아파트 가격이 다들 아시다시피 가파르게 올랐다.

팔고남은 돈으로 한 주식투자는 지금 엄청나게 폭락을 해서 남은 돈 은 날아간 셈이다. 2023년 1월 현재는 아파트시세가 없다 해도 P씨가 소 유했던 아파트는 대형아파트이기에 월급으로 중부세 내는 것이 너무 부 담이 되어 양도세 중과 일시 배제 시책이 나오자 팔지 않을 수가 없었다 며 속상해 한다. 무엇보다 당시 개미투자자들의 엄청난 주식투자 열풍 에 금융계에 있는 자신이 투자를 안 할 수가 없었다. 재물문의 정성은 자 기 사주를 거스르지 말라는 것이다. 자신에게 허용된 재물의 방향을 무 시하면 습니오옥되어 물처럼 흘러버리거나 모래알처럼 빠져나간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106호
일간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210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생각하는 힘

문제출제: 손호성

문제풀이방법

4X3 스도쿠는 가로·세로 4X3박스에 1부터9 ABC의 문자 부동호 스도쿠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9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5	6		
	8				2
			3		8
1			7		4
		4			5
6					7
			5		
		3	8		
	5		2	9	
					3



하루에 한 장 기적의 두뇌퍼즐
사무라이스도쿠

손호성 저 | 스도쿠66 | 10,000원

				7	5	4
						9
		1		8		
			4			
					3	9
1		5		6		7
8				5		2
7						4
	1			4	7	

정답

8	2	9	6	3	1	5	7
5	1	2	7	4	8	9	6
9	6	7	8	5	1	2	4
2	7	1	9	7	8	6	9
8	9	5	1	6	2	7	8
6	7	8	9	2	5	4	1
7	8	2	8	6	9	1	5
2	9	9	2	1	7	6	8
1	8	6	9	8	9	2	7

8	6	2	7	8	2	9	1	5
8	9	1	9	8	6	2	7	4
7	9	2	1	9	2	6	8	8
2	8	7	6	9	8	9	2	1
1	2	6	8	2	9	7	8	9
9	8	9	2	1	7	8	2	6
2	8	8	6	9	1	9	7	
6	1	8	9	7	8	2	9	2
9	7	9	2	2	1	8	6	8

고난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argo9.com>